

# 차량 잔가보장, 2.6% 저금리 할부... 車 업계 '구매혜택 풍성'

**현대차** 브랜드 'N' 출범 10주년 N 파이낸스 할부, 저금리 운용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50만원 지원에 36개월 4% 할부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3.3% 할부에 엔진오일 3회 교환권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사진.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시장 판매 회복을 위해 저금리 할부와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출범 10주년을 맞아 금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N 차량의 잔가를 보장하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인 'N 파이낸스 할부'와 저금리 운용으로 구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36개월 기준 아반떼 N에 최대 65% 잔가보장과 금리 3.5%를, 아이오닉5 N에 최대 55% 잔가보장과 금리 2.9%를 적

용한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을 최초 공개했으며, 아반떼 N과 아이오닉5 N을 출시하는 등 10년간 고성능차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GM의 브랜드 쉐보레와 캐딜락은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자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할부 혜택 결합 방식)을 통해 현금 50만원 지원과 4% 이율로 최대 36개월, 4.5% 이율로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4.9% 이율로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과 50만원을 지원한다.

캐딜락은 에스칼레이드 구매 고객에게 보증연장(1년·2만km, 일반·차체부

품) 혜택과 최적의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객은 ▲800만원 할인 ▲36개월 2.6% 저금리 할부(선수금 0%) ▲60개월 4.7% 리스(보증금 0%) ▲제휴 할부·리스 이용 시 선수금과 보증금 800만원 지원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11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19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는 중형 SUV '뉴 르노 그

랑 콜레오스' 구매 고객에게 지난 달보다 1% 이상 이율을 낮춘 3.3% 할부 상품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36개월, 할부원금 최대 2500만원 기준이다. 또 엔진오일 3회 무상 교환권도 증정한다.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모델의 경우 특별 대상 차량에 대한 50만원 추가 혜택도 제공하며 5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고객 혜택 40만원, 각 판매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 최대 20만원, 1회 기준 재구매 혜택 등도 있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2.0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 그랑 콜레오스의 3월 최대 혜택은 130만원이다. 스마트 유예 할부 상품을 선택하면 36개월 기준 하이브리드 월 20만원, 가솔린 월 18만원의 불입금만으로도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할 수 있다. 선수율에 따른 월불입금 조정도 가능하다.

스튜디오셀러 중형 SUV QM6와 쿠페형 SUV 아르카나, 중형 세단 SM6도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중기부, 청소년들에 '기업가 정신' 심는다

'기업가 정신 교과서' 첫 발간 경기 삼고고등학교 정규과목 채택 집필교사 5명 교원 직무연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창업강국'을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Youth Entrepreneurship) 교과서(사진)'를 최초로 발간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규 교과목이 부재했다. 하지만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를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수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를 개발했다.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는 지난해 3월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사업(교육부)에 선정됐으며, 연구위원(교육과정 구성) 및

집필위원을 구성해 같은해 12월 교과서 개발을 끝냈다. 이후 올해 2월 7일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통해 인정 도서 승인을 받았다.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교과목 평가는 관찰,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발표 등을 통해 통과·실패로 부여할 예정이다.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학교인 경기도 삼고고등학교에서 올해 3월 최초로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채택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협력해 비즈쿨 고등학교를 포함한 우선 대상 학교 360곳에 교과서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교사 5명을 전문가로 활용해 방학기간 중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부교재 및 강의를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업가정신 교육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키워, 미래 사회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정규 교과시간에 기업가정신을 배우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LG전자 "에어컨, 사전점검 받으세요"

오는 10일~내달 말까지 서비스

LG전자는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 기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고객들이 에어컨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적용한 'LG 스마트 체크(LG SMART CHECK)' 앱을 활용해 진행된다. LG전자 전문 엔지니어가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냉방 성능 ▲냉매 상태 ▲전원 및 배선 연결 ▲필터 및 배수 호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LG 스마트 체크' 앱은 제품을 무선으로 연결해 부품을 직접 분리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시간 운전 정보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은 LG전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44-7777)를 통해 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출장비와 점검비가 무료로 제공되며, 부품 교체나 냉매 주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중진공, 1000억 규모 투융자 정책자금 지원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각각 500억 씩... 오늘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4일부터 투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2025년 투융자 지원예산은 ▲성장공유형 대출 5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벤처투자 불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 창업기업, 선투자 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환우선주(CPS)'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 상환권이 없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 대비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스타트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브릿지펀드를 신규 추진했다. 올해도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저리 융자를 공급해 유망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4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지원조건으로는 중진공이 융자 지원 시 융자총액의 5%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지원기업은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으로 대출금(융자금)을 조기 상환한다. 기존엔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되 상환한도를 대출금의 20%까지로 설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 투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달 21일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주최로 팀스타운 S1에서 열린 '제8회 KAIA 실무자 클럽하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 'KAIA 실무자 클럽하우스' 행사 성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유망 스타트업 기술·성과 소개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가 개최한 '제8회 KAIA 실무자 클럽하우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팀스타운 S1에서 개최된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들의 기술 및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투자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씨엔티테크가 주최하는 '서울혁신챌린

지 성과공유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주최 기관 소개와 함께 투자자들의 리버스 피칭이 이뤄졌다.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와 D B캐피탈 강석민 팀장이 각각 디지털헬스케어와 AI·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2부는 서울혁신챌린지에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